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7~20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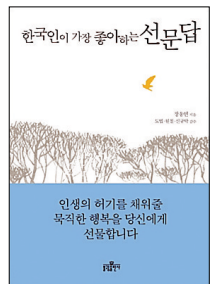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지금이라도알아사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원경	법륜지음 정토
3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8	아담법사-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4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9	가파-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진부역음	모과나무
5	속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10	호흡이주는선물	레리르앤그의 나무틈새는사랑	



삶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옛 선사들의 찌렁찌렁한 외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용연 지음 | 도법 원철 신규택 감수 | 불광 펴냄 1만 3천원



“선문답하고 앉았네!” 이렇게 일상생활서 선문답은 흔히 동문서답과 같은 처로 대접받는다. 대답이 뜬구름을 잡거나 무책입할 때 언론서 번번이 가져다 쓰는 관용어가 돼버렸다. 어쩌면 선문답은 말

같지 않은 말이다. 다만 문맥을 벗어나 있어서 통념을 초월해 있다. 말싸움에 끼지도 말장난으로 기만하지도 않는다. 율음에 대한 떠돌은 그냥 떠돌이다. 남들 말에 오레도록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말을 찾아야 한다. 마조도일 선사가 꿈져 누웠을 때 누군가 물었다.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마조가 말했다. “일면불, 월면불!” 사실상 그의 열반송이다. 열피 알송달송하나, 무슨 거창하고 심오한 의미를 품은게 아니라서 그렇다. 일면불은 수명이 1,800세에 이른다는 부처님이다. 반면 월면불은 하루살이다. 마조의 대답은 “좋은때도 있고 나쁜때도 있다”며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병세를 재치있게 표현한 말이다. 자기 구석에 매달리기에 앞서 죽을 앞에서도 농담을 던질 수 있던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지난 한 인생의 길목서 다시 펼쳐든 선가(禪歌)의 말들.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유명한 역대 화두 100개를 가려 뽑았다. 선 정신의 핵심을 가르는 촌철살인의 논평이 곁들여져, 선문답(禪問答)의 묘미를 흠뻑 느끼게 해준다.

을 이해 못하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요원하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래로 달마 대사를 비롯한 술한 선사들이 그토록 전하려는 선불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라”는 한 마디 말로 귀결된다. <무소유>로 유명한 범정 스님 또한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고백한 바 있다.

중국의 옛 선사들인 혜능, 마조, 백장, 조주, 임제 스님 등을 이어 우리의 경허, 만공, 성철 스님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외쳤다.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란 없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완성된 존재, 즉 본래부처임을 깊이 이해하고 확인하는 데서 자신의 참모습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 본연의 정신이다.

그래서 선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있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안겨 준다. 그 통찰을 삶에 적용시킨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갖은 어

유명한 역대 화두 100개 가려 뽑아

禪정신 핵심 가르는 촌철살인 논평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온전히 살라”전해

려움이 옥죄어오더라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 오늘을 거뜨하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 저자가 말하는 목직의 행복이다.

저자는 “눈 내리는 거리의 모든 뒷모습은 안아주고 싶게 생겼다. 산다는 건 이라나저러나 견디는 것이요, 견디기 쌓이면 무심(無心)이 쌓인다. 그 행복은 너무 무거워서, 남이 훔쳐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이 책을 감수한 원철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장)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웅연 거사에 의해 또 다른 ‘교외별전’으로 이어지는 화두집이 새로 나왔다. 나의 안목과 목소리로 ‘말을 붙인’ 흔치 않은 책이다.”라고 평했다.

각자 다른 위치서 치열히 선을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도법 스님, 원철 스님, 신규택 교수가 꼼꼼히 감수했다. 짙막한 감수의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진가가 느껴진다. 이외에도 각각의 선문답 일화가 실린 출처와 선사들의 이력을 흥미롭게 풀어주고 있어, 종교를 떠나 선의 세계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 역할도 한다.

김주필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道)는 찾을 필요조차 없다... 생각 이전의 것을 확인하라”

아줌마와 선

임순희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3천원



아줌마가 깨친 도(道), 그러나 당신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과 온전한 자유를 위한 명쾌한 안내서다. 평범한 아줌마의 몸으로 선(禪)을 공부해 도(道)를 알게된 저자가 우리의 본성이자 궁극의 진실인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가리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저자가 마음공부에 입문해 진리에 눈 뜨고 마침내 온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2부서 4부까지는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늘 있는 진리를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끈질긴 분별의 습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 말들을 실었다.

구도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한다. 왜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결코 변치 않는 궁극의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끝없는 생사유전의 꿈에서 깨어나 어떤 분리도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온갖 번뇌의 감옥서 해방돼 온전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간 무척이나 신비화되고 왜곡되고 오해되기도 했다. 깨달음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상상될 뿐 아니라,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일이며 초인적인 고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이 책 저자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평범한 아줌마지만, 선(禪)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진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녀는 출가 하지도 않았고, 수련 코스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다양한 경전을 섭렵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신통을 경험한 적도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불현듯 일어나는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삶의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이고, 우연찮게 도시 교외의 자그마한 선원을 알게 돼 꾸준한 마음공부를 하

순회도 하는데 철수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단, 참된 자신에 대한 의문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리를 가리키는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선불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마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과는 다른, 생각 이전의 것인 이 마음은 존재 자체이며, 만상의 근원이자 바탕이며, 모든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까닭은 모양이 없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찾는 한 이 마음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안내를 잘 따르지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본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가리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다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노(老)보살님들까지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책에는 노보살님들과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면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모양을 통해 즉각각각 확인되는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공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공부는 그 뒤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굳어진 분별의 습관, 생각과 관념에 대한 믿음, 분리된 개인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버릇은 뿌리가 깊고 교묘하며 완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다.

김주필 기자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설명

분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도 소개

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됐고,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머리맡”에는 중년의 대학교수와 저자 임순희 씨가 나눈 다음의 대화가 실려 있다.

그때 불쑥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오늘 용기를 먹고 갑니다. 저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이 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발심만 제대로 되었다면 남녀노소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순회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까요?” 그러면서 껄껄 웃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요. 순회도 하는데 철수라고 못할까요?”

단숨에 재미있게 읽는 소설식 육조단경

육조단경

법진 | 이원일 공저 | 불루리본 펴냄 | 1만 7천원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육조단경>은 어려운 한문과 그 해석 내지는 해설로 돼있다. 그 결과, 일반 불교 신자들이나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이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딱딱하고 지루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읽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해는 일대기로 읽는 육조단경>은 6조 혜능대사 일대기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

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일반이나 초보자이나 누구나 소설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불교와 선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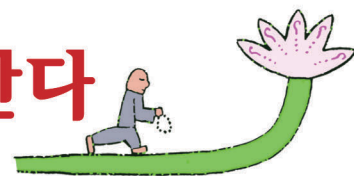
이 책은 육조 스님 삶의 족적 하나하나를 좇아 가며 생애와 수행의 단편들을 방대한 생생한 현장답사 사진과 역사자료 및 도해를 곁들여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육조 혜능 스님이 태어난 광동 신흥현서 출발해 5조 흥인대사에게서 의법을 전수 받은 해베이성 황매 오조사를 거쳐, 다시 남해해 매령, 즉 대유령을 넘어 행화도랑 사오관 보림사를 거쳐 열반 도랑 국은사까지 각종 생생한 현장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또한 기존 <육조단경>이 한문과 그 해석 위주였고 곳곳에 있는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일반인이나 초보불자들이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전 일지라도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 못한다면 경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반감되거나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자들이 흔히 <육조단경>에 대해 갖는 어려운 용어나 의문점을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명쾌한 해설로 속 시원히 해결한다. 이 책은 또한 선의 핵심을 오롯이 담아내고, 난해한 선의 묘리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선사상 이해의 길잡이 역할도 한다.

일부무식 나무꾼 출신의 행자 혜능이 조계종 창시자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구도의 역정과 또 다른 경쟁자 신수대사와의 돈오나, 점수나 하는 대결, 그리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남종선을 중국 대표종파로 화려하게 꽃피우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육조단경 탄생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김주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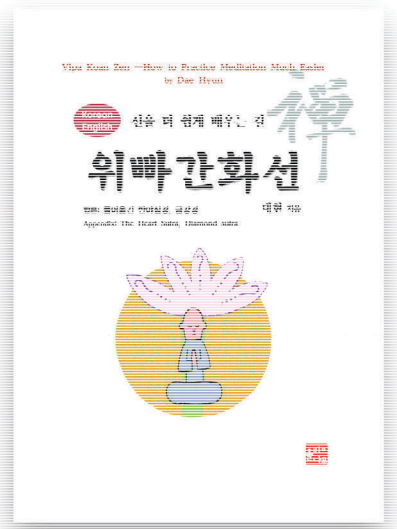
선수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위빠간화선

선을 더 쉽게 배우는 길

한영판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뭘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위빠간화선과 함께 하십시오. 대자유의 길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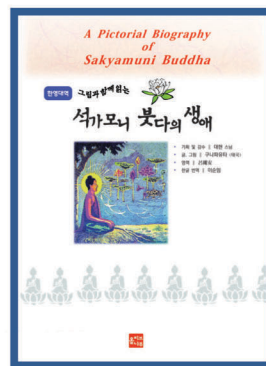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잡이”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며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필요없게 된다. 위빠간화선은 누구나 원하는 수행의 열매를 훨씬 쉽게 수확하게 해주는 촉매가 되어주는 것이다.

합본: 풀어읽기 반야심경, 금강경

“간화선 수행은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보다 갈아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화두가 성성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화두를 놓쳤을 때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되돌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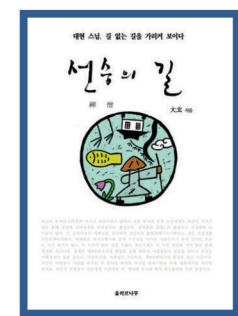
• 자매편: 『선을 배우는 길』 대현 지음/신국문/302쪽/값 15,000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펴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심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한영대역판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우리반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